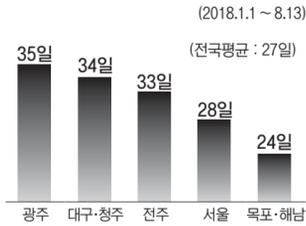


대구보다 뜨거운 '광프리카'...광주 폭염일수 35일 전국 최장

1994년 기록 연일 돌파
여수 28일 연속 열대야 최장
당분간 폭염 계속될 듯

■ 전국 주요도시 폭염일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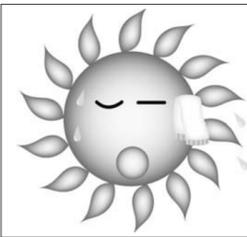
'광프리카' (광주와 아프리카의 합성어)로 불리는 광주가 실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가 됐다.

15일 현재 올해 광주의 폭염(최고 기온 33도 이상)일수와 폭염 최장지속일수는 각각 35일과 33일로, 우리나라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긴 기록을 연일 경신 중이다.

특히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처서(處暑)인 오는 23일 이후까지 34도를 유지하는 등 폭염과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기상 관측 이래 최고 무더웠던 1994년 폭염기록을 모두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상청 발표한 '전국 주요도시 폭염일수 현황(2018년1월1일부터 8월13일)'을 살펴보면 광주의 폭염일수는 35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대구·청주(34일), 전주(33일), 서울(28일), 목포·해남(24일) 등



광주 연일 폭염 기록 경신

- 지속일수 33일로 대구보다 많아
- 낮 최고 기온 38.5도로 역대 최고
- 기상관측 이래 첫 40도 돌파도
- 무강수 일수 34일로 역대 최장

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3일 기준 광주가 기록한 폭염일수(35일)는 공식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수다.

폭염 최장지속 일수도 아프리카만큼 답답한 의미에서 광주보다 먼저 '대프리카'라고 불린 대구보다 1일이 많은 33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올해 광주의 낮 최고기온도 새롭게 경신됐다.

폭염이 16일째 이어진 지난달 27일 오후 4시 24분께 북구 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1938년 8월 광주 측후소(광주지방기상청 전신) 창설 이래 가장 높은 낮 최고기온인 38.5도를 찍었다. 광주 공식기록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광주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지난 1일에는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40도를 넘어 서기도 했다. 이날 서구 풍암동에서 기록한 40.1도는 광주지방기상청이 아닌 자동 기상관측장비(AWS)가 측정해 공식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광주의 무강수 일수(無降水 日數·비가 내리지 않은 일수)도 기상청 관측 이래 전국에서 가장 긴 34일(7월7일-8월9일)을 기록했다.

이 기간 광주지역에 몇 차례 걸쳐 소량의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광주의 공식 기상관측소인 북구 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 앞 관측지점에는 소나기가 내리지 않으면서 강수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는 올 여름 열대야 연속기록도 기존 10일(2016년)을 두배나 뛰어넘는 21일을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 11일 최저기온이

24.9도로 떨어지면서 21일째 이어진 열대야 기록이 일시적으로 끊긴 뒤 다시 유지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여수시가 이날 현재 28일로, 열대야 연속 기록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열대야연속기록 1위는 제주 서귀포로, 지난 2013년 49일을 기록했다.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열대야라고 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16일에는 지형적인 효과로 인해 잠시 1-2도 정도 낮아질 수 있지만 낮 최고기온은 33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공기 유입되고 여기에 강한 일사효과까지 더해져 매우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리콜 대상 아닌 BMW 임실서 주행 중 또 화재

15일 새벽 4시 17분께 전북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하촌마을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이 전소해 1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운전자 A(28)씨는 "차량이 덜컥거리는데 느낌이 들어 정차한 뒤 보닛을 열자 연기가 새어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체 진화하려다 연기가 확산하자 119에 신고했다. 해당 차량은 2012년 4월식으로 리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을 20분 정도 운전하던 중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실=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드론 활용 농약 살포 15일 광주시 남구 대촌동 대지마을 인근 벼 재배단지에서 농민들이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갈취 10대 2명 징역형 선고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유도한 뒤 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5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 군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성년 여성과 공모해 인터넷 채팅으로 C(23)씨를 만나 성매매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폭행하고 현금 5만3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중생이 렌터카 빌려 사고...법원 "업체 과실 절반"

법원이 나이를 속이고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낸 미성년자와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를 빌려준 업체에 각각 절반씩 과실 책임을 물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고상교 판사)은 A렌터카 업체가 중학교 2학년인 B(14)양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를 낸 B양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688만원을 A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양은 지난해 9월 30일 당시 만 21세인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A업체에서 LF쏘나타 차량을 빌린 뒤 다음날 이 차를 운전하다가 충남 보령의 한 도로 커브 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장애물을 충격, 차가 크게 파손됐다.

A업체는 사고처리 후 차량 수리비, 견인비, 동급차량의 렌트료 등으로 B양과 부모에게 1730만 원을 청구하는 사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B양 측의 책임을 제한

적으로 인정했다.

고 판사는 "원고는 피고 B양이 화장을 하고 나타나 피고가 제시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피고를 같은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지만 한눈에 보기에 도들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면서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그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뉘싯배 침수·어선 좌초...여수서 잇단 선박사고

인명피해 없이 전원 구조

여수해상에서 수십명이 탄 갈치잡이 뉘싯배가 침수되고, 소형 어선이 좌초되는 등 선박사고가 잇따랐다.

15일 여수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 29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작도 남동쪽 3km 해상에서 22명이 탄 9.77t 규모 뉘싯배(여수 선적)의 기관실이 침수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배는 이날 오후 3시께 여수 국동항에서 승객 20명을 태우고 출항해 사고 해역에서 선상 갈치잡이 중이었다.

해경은 경비함정, 경비정 2척, 구조대를 사고 현장에 급파해 승객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고 경비정에 옮겨 태운 뒤 국동항으로 무사히 이송했다.

사고가 난 뉘싯배는 기관실 배수 작업과 함께 임시 수리를 했으나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자 안전 해역으로 이동시켰다. 선장을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상 없었다.

해경은 기관실 해수펌프 파이프에 구멍이 생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오전 11시 30분께에는 여수시 경호동 노도 앞 해상에서 4.99t급 K호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 배에는 선장 박모(26)씨와 선원 한 명이 타고 있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나 선체에 큰 이상은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대원들은 K호에 예인줄을 연결해 3분여 만에 암초에서 배를 떨어뜨렸고 K호는 자력 항해로 낮 12시 20분께 백초항에 무사히 입항했다.

해경 관계자는 "K호가 가막만 인근에서 조업을 끝내고 입항 도중 암초에 좌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익숙하지 않은 바닷길에서는 지형지물과 레이더, 지도, 조수간만의 차 등을 제대로 확인한 뒤 안전 항해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도축장 가던 소 탈출 소동...80대 노인 들이받아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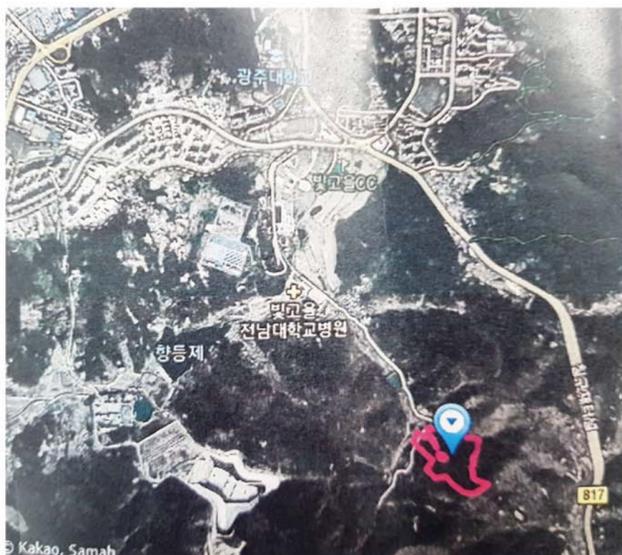
○-광주에서 도축장으로 이동하던 소가 달아나 80대 노인 2명과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소동을 벌이다 1시간여 만에 포획.

○-15일 광주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9분께 광주 광산구 운수동 한 도로에서 소 한 마리가 도로 위를 지나던 승용차와 행인 A(87)씨를 들이받았다는 것.

○이 사고로 A씨가 쇠파이프와 무릎에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광주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소가 운수동 도축장까지 트럭으로 이동하던 중 탈출했다"면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소를 주변 밭으로 유인해 마취제를 투여한 끝에 오전 10시 12분께 포획, 주인에게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